

「産業발전의 길잡이」 될 터



회 장 具 滋 斗

情報社會는 高度化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고도정보화사회(Advanced Information Society)로 진입한 美·日 등 선두그룹 국가들은 정보화의 「速度競争」을 국제사회의 리더쉽 장악을 위한 要件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도정보화의 핵심요인인 情報通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특히 産業의 중추인 企業의 정보욕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도정보화를 둘러싼 企業의 經營戰略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심의 표명과 함께 전환기를 맞고 있는 電氣通信政策에 발맞춘 새로운 情報通信 産業의 출현으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및 설비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政府는 부분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의 門戶를 민간에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附加價值通信網(VAN)사업의 개방은 민간의 創意力과 活力을 크게 촉진시켜 정보산업 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協會는 정부의 전산망사업 활성화 정책의 所産인 「전산망 이용 촉진 및 보급확장에 관한 법률」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올 4월, 민간전산망 사업자들을 주축으로 발족했습니다.

법률이 협회의 설립취지를 마련한 취지는 정보통신에 관한 政策의 수립에 산업계의 참여가 필연적이

라는 데에 있습니다. 制度와 法을 만들고 고쳐나 가는데 있어서 민간의 일관성 있는 建議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에 관련된 정부의 각종 委託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육성,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海外市場 개척의 공동대처 등의 관점에서도 협회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인식과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 협회는 전산망사업 및 정보통신산업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협회의 설립목적인 전산망사업의 발전과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게 될 협회지 「정보화사회」를 창간합니다.

「정보화사회」는 전산망과 정보통신의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동향, 그리고 당국의 政策을 소상히 소개하는 한편 전문가의 論評과 提言을 통해 산업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여건이 미흡한 형편에서 서툰 걸음을 내딛지만 「정보화사회」는 業界·學界 그리고 관련機關이 폭넓게 참여하는 産業文化 창달의 廣場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讀者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며 귀한 글을 기고하심으로써 創刊호 제작에 협력해 주신各界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